

MZ세대 간호대학생의 의사소통능력과 대인관계유능성의 관계에서 공감능력의 매개효과

김양신¹, 이재숙^{2*}

¹대전과학기술대학교 간호학과 부교수, ²문경대학교 간호학과 조교수

Mediating Effect of Empathy in the Relationship between Communication Skills and Interpersonal Relationship of MZ Generation Nursing Students

Yang-Sin Kim¹, Jae-Sook Lee^{2*}

¹First author, Associate Professor, Daejeon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Department of Nursing

²Corresponding author, Assistant Professor, Munkyeong College, Department of Nursing

요약 MZ세대 간호대학생의 의사소통능력과 대인관계유능성의 관계에서 공감능력의 매개효과를 확인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본 연구의 대상은 MZ세대에 해당되는 1981년에서 2006년생 간호대학생 129명이며, 자료수집 기간은 2023년 5월 20일부터 7월 30일까지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 25.0 program으로 분석하였으며, 공감능력의 매개효과는 Baron과 Kenny의 3단계 매개효과 검증 절차를 밟았고, 매개효과의 통계적 유의성을 검정하기 위해 Sobel test를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대인관계유능성에 의사소통능력($\beta=.45, p<.001$)과 공감능력($\beta=.18, p=.008$)이 유의한 영향을 주었고, 이들 변수는 대인관계유능성에 대해 48.4%의 설명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의사소통능력과 대인관계유능성의 관계에서 공감능력은 부분매개효과($z=2.39, p=.016$)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미래의 간호를 담당하게 될 비대면 문화에 익숙한 MZ세대의 특성에 대한 이해와 함께 이들의 대인관계유능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실효성 있는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키워드 : 간호대학생, 의사소통, 대인관계, 공감

Abstract This is a descriptive research study to confirm the mediating effect of empathy in the relationship between communication skills and interpersonal relationship of MZ generation nursing students. The subjects of this study were 129 nursing students born in 1981 to 2006, corresponding to the MZ generation, and the data collection period was from May 20 to July 30, 2023. The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using the SPSS 25.0 program, and the mediating effect of empathy was tested by Baron and Kenny's three-step mediating effect verification procedure, and Sobel test was conducted to test the statistical significance of the mediating effect. As a result of the analysis, communication skills ($\beta=.45, p<.001$) and empathy ($\beta=.18, p=.008$) had a significant effect on interpersonal relationship. These variables were found to have 48.4% explanatory power for interpersonal relationship. Empathy had a partial mediating effect ($z=2.39, p=.016$) in the relationship between communication skills and interpersonal relationship.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study, it is necessary to understand the characteristics of the MZ generation familiar with the non-face-to-face culture that will be in charge of future nursing and to develop effective programs to improve their interpersonal relationship.

Key Words : Nursing students, Communication, Interpersonal relationship, Empathy

*Corresponding Author : Jae-Sook Lee(hmoymo@mkc.ac.kr)

Received February 29, 2024

Accepted May 20, 2024

Revised March 27, 2024

Published May 28, 2024

1. 서론

MZ세대는 'M(밀레니얼, millennial)세대'와 'Z세대'를 총칭하는 용어로 1980년부터 2000년대 초반에 출생한 사람들을 일컫는데, 이들은 디지털 기술의 발전과 함께 성장해온 세대로 글자보다는 영상에 익숙하며 SNS 등을 통해 정보를 공유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데도 익숙하다[1]. 이러한 MZ세대를 대표할 수 있는 집단 중의 하나는 20대 초반 간호대학생으로, 최근 코로나19라는 유례없는 감염병 팬데믹 상황을 경험하며 비대면 문화에 자연스럽게 적응된 집단이라 할 수 있다. 특히 MZ세대 간호대학생은 미래의 간호를 이끌어 나갈 주역이지만 다양한 세대로 구성되어 있는 간호현장에 적응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소통의 수단 중 말은 가장 기본적이며 중요한 수단이지만 함께 있어도 SNS 등 비대면 소통에 더 자유로운 간호대학생은 기존과는 다른 의사소통 방식을 사용하게 되면서[1] 이전 세대뿐만 아니라 같은 세대와의 의사소통에도 어려움이 예상된다. 간호사는 대상자를 돌봄에 있어 의사소통을 통해 치료적 관계를 형성하므로[2], 간호대학생의 의사소통능력 함양은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기존 세대와는 다른 의사소통 방식을 사용하는 MZ세대 간호대학생을 위한 차별화된 의사소통 교육 전략이 필요하다.

이러한 의사소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난 대인관계유능성[3]은 타인과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고 정서적인 지지를 주고받을 수 있는 능력[4]으로 다른 사람과 관계를 효과적으로 맺고 유지할 수 있음을 말한다. 따라서 대인관계유능성을 위해서는 의사소통이라는 상호 교류적 수단과 뗄 수 없는 관계[5]에 놓여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대인관계유능성은 다양한 세대를 대상으로 하며 근무자 간 협력과 상호작용을 기반으로 한 간호 업무의 특성 상 간호대학생이 함양해야 할 중요한 역량이므로 임상 실습수행능력에서도 대인관계유능성은 가장 큰 영향력을 갖는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6]. 그러나 최근 코로나19 팬데믹 속에서 대면 접촉이 제한되어 같은 교실에서 공부하는 학생간의 대면 교류마저도 어려움을 겪었던 경험이 있는 간호대학생을 중심으로 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이러한 경험과 대인관계유능성의 관계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다.

공감능력은 상대방의 경험이나 상황에 정서적으로 다

가가거나 인지적으로 감지하는 개인의 능력을 일컫는 개념으로[7] 인공지능과 로봇의 발전으로도 대체될 수 없는 중요한 간호사의 역량이다[8]. 이러한 공감능력은 대인관계를 맺고 유지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9] 대상자 이외의 간호 업무를 진행함에 있어 다양한 구성원과의 협력을 이끌기 위해서도 필요한 능력이지만[8] 일상화된 비대면 문화는 대인관계 접촉을 줄이게 되어 환자와 치료적 관계를 통하여 간호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난 공감능력을 위협하고 있다[10]. 공감능력이 높은 사람은 타인의 감정이나 심리상태를 잘 읽어낼 수 있으며 비판하기보다 수용적 태도로 다른 사람을 도와주려는 성향을 가지므로[11], 비대면 문화에 익숙한 MZ세대 간호대학생의 공감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차별화된 교육프로그램 개발이 절실하다.

기존의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의사소통능력과 대인관계유능성 및 공감능력에 대한 많은 연구[3,11-13]가 이루어져 왔다. 대인관계유능성이 의사소통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임을 확인하였으며[3], 의사소통의 매개효과와[11,12], 대인관계유능성과 공감능력, 의사소통능력이 노인차별에 미치는 영향을[13], 확인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최근 코로나19 팬데믹 상황 하에서 간호교육을 받은 앞으로의 간호를 이끌어 나갈 주역인 MZ세대 간호대학생만으로 대상을 구체화하여 진행된 연구는 찾아볼 수 없다.

현재 다양한 분야에서 MZ세대의 특성을 파악하고 자신의 분야에 적용하기 위해 다양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1]에서 본 연구 진행은 의미가 있다고 사료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MZ세대 간호대학생의 의사소통능력과 대인관계유능성의 관계를 알아보고, 공감능력의 매개효과를 확인하고자 한다.

2. 연구방법

2.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MZ세대 간호대학생의 의사소통능력과 대인관계유능성의 관계에서 공감능력의 매개효과를 확인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2.2 연구 대상

본 연구의 대상자는 대전, 충청, 경북 소재 간호대학에 재학 중인 전체 학년의 간호대학생으로, 연구 참여에 동의

한 MZ세대에 해당되는 1981년에서 2006년생이 대상이다. 연구에 필요한 대상자 수는 G-power 3.1.9.7 program을 이용하여 산출하였고, 다중회귀분석을 위해 예측 요인의 수는 9개, 효과 크기 .15, 유의수준 .05, 검정력 .85 유지를 위해 필요한 표본 수는 126명이었으나 탈락률을 고려하여 130명에게 설문지를 배부하고 회수하였다. 이 중 응답이 불성실한 1명을 제외한 129명의 설문지를 최종 분석에 이용하였다.

2.3 연구도구

2.3.1 의사소통능력

본 연구의 도구는 Rubin (1990)[15]의 Interpersonal Communication Competence Scale (ICC)에서 제시한 의사소통능력 구성 개념에 허경호(2003)[16]가 7가지 개념을 합하여 수정·보완한 GICC이다. 총 15문항으로 이루어졌으며, 자기노출, 공감, 사회적 긴장 완화, 주장력, 집중력, 상호작용관리, 표현력, 지지, 즉시성, 효율성, 사회적 적절성, 조리성, 목표 간파와 반응력 및 잡음 통제력을 포함한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의 Likert 척도로 구성되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의사소통능력이 높음을 의미한다. 개발 당시 허경호(2003)[16]의 연구에서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 .76$ 이었고,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alpha = .82$ 이었다.

2.3.2 대인관계유능성

Buhrmester 등(1988)[4]이 개발한 대인관계유능성 질문지(Interpersonal Competence Questionnaire: ICQ)를 한나라와 이동귀(2010)[17]가 한국 대학생에 맞게 수정 보완한 도구이다. 5개 하부영역의 총 31문항으로, 관계 형성 및 개시, 권리나 불쾌함에 대한 주장, 타인에 대한 배려와 갈등 관리 및 적절한 자기 개방으로 구성되었다. 각 문항은 Likert 5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대인관계유능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개발 당시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 .83$ 이었고, 한나라와 이동귀(2010)의 연구[17]에서는 Cronbach's $\alpha = .88$ 이었으며,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alpha = .78$ 이었다.

2.3.3 공감능력

Davis (1983)[18]가 개발한 대인관계 반응성 척도(Interpersonal Reactivity Index)를 전병성(2003)[19]이 보완하고 재구성한 도구이다. 총 30문항으로 이루어졌으

며, 관점 취하기와 상상하기, 공감적 관심과 개인적 고통의 4개 영역으로 구성되었다. 각 문항은 Likert 5점 척도로 구성되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공감능력이 높음을 의미한다. 개발 당시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 .70 \sim .78$ 이었고, 전병성(2003)[19]의 연구에서는 Cronbach's $\alpha = .84$ 이었으며,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alpha = .81$ 이었다.

2.4 자료수집 방법

자료수집 전 D 대학교의 기관생명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득한 뒤 자료수집을 실시하였으며, 자료수집기간은 2023년 5월 20일부터 7월 30일까지였다. 자료수집방법은 연구자가 해당 대학의 간호학과 학과장에게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절차 등에 대한 설명을 하고 허락을 득한 뒤 자발적으로 연구 참여 의사를 밝힌 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다. 설문조사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하였으며, 설문조사에 소요되는 시간은 대략 10분 정도였다. 응답이 완료된 설문지는 사전에 함께 제공되었던 봉투에 넣어 밀봉한 뒤 학과 사무실에 제출하도록 하였으며, 연구자가 방문하여 회수하였다.

2.5 자료분석 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 25.0 program을 이용하여 빈도, 백분율과 평균 및 표준 편차를 구하고, 차이 비교는 t-test와 ANOVA로 분석하였다. 각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s로, 대상자의 대인관계유능성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Hierarchical multiple linear regression을 이용하였다. 대상자의 의사소통능력과 대인관계유능성과의 관계에서 공감능력의 매개효과는 Baron과 Kenny의 3단계 매개효과 검증 절차를 밟았으며, Sobel test를 통해 매개효과의 통계적 유의성을 검정하였다.

2.6 윤리적 고려

본 연구는 D 대학교 기관생명윤리위원회의 IRB(No. 1044342-20230516-HR-005-01) 승인을 받은 후 진행하였다. 연구대상자에게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설문지를 통한 자료 수집 방법, 연구 참여를 통한 사회적 기여 등에 관한 설명 외에도 익명성 보장과 연구 목적 외의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을 것임을 약속하고 동의서를 받은 뒤 설문을 진행하였다. 또한 연구 참여 도중이라도 언제든지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and differences of Variables according to participants' characteristics

(N=129)

Characteristics	Categories	No (%) or Mean±SD	Empathy		Interpersonal relationship	
			Mean±SD	t/F (p)	Mean±SD	t/F (p)
Gender	Female	95 (73.6)	3.37±0.40	0.01 (.916)	3.25±0.38	0.01 (.906)
	Male	34 (26.4)	3.36±0.43		3.26±0.34	
Age (year)	<20	26 (20.2)	3.78±0.42	0.36 (.698)	3.26±0.33	0.13 (.881)
	20-29	95 (73.6)	3.35±0.41		3.26±0.38	
	30≤	8 (6.2)	3.48±0.38		3.19±0.42	
Grade	1st	33 (25.6)	3.46±0.43	1.04 (.376)	3.30±0.37	0.81 (.488)
	2nd	37 (28.7)	3.37±0.44		3.29±0.34	
	3rd	28 (21.7)	3.28±0.40		3.24±0.36	
	4th	31 (24.0)	3.35±0.34		3.17±0.41	
Health status	Bad	3 (2.3)	2.91±0.47	3.95 (.049)	3.04±0.73	1.01 (.319)
	Good	126 (97.7)	3.38±0.40		3.26±0.36	
Satisfaction in major	Dissatisfied	5 (3.9)	3.40±0.37	0.53 (.593)	3.41±0.29	0.87 (.352)
	satisfied	124 (96.1)	3.35±0.41		3.25±0.37	
Communication education	Yes	99 (76.7)	3.36±0.43	0.03 (.859)	3.30±0.36	5.62 (.019)
	No	30 (23.3)	3.38±0.34		3.12±0.37	
Empathy education	Yes	84 (65.1)	3.39±0.43	0.38 (.412)	3.31±0.33	5.80 (.018)
	No	45 (34.9)	3.33±0.30		3.15±0.41	

자유롭게 연구 참여에 대한 철회가 가능하며 이에 대한 어떠한 불이익이 없음을 설명하였다.

3. 연구결과

3.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일반적 특성에 따른 공감능력과 대인관계유능성의 차이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으로는 평균 연령이 22.36세였으며, 여성이 95명(73.6%), 학년은 2학년이 37명(28.7%)으로 가장 많았다. 건강상태는 ' 좋음'으로 응답한 학생이 126명(97.7%), 전공 만족도는 ' 좋음'으로 응답한 학생이 124명(96.1%)으로 가장 많았다. 의사소통 교육 참여는 '있음'으로 응답한 학생이 99명(76.7%), 공감교육 참여는 '있음'으로 응답한 학생이 84명(65.1%)으로 나타났다 (Table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공감능력과 대인관계유능성의 차이는, 건강상태($t=3.95, p=.049$)만이 공감능력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의사소통 교육 참여($t=5.62, p=.019$)와 공감교육 참여($t=5.80, p=.018$)가 대인관계유능성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1).

3.2 대상자의 의사소통능력과 공감능력 및 대인관계유능성의 정도

MZ세대 간호대학생이 지각하는 의사소통능력, 공감

능력 및 대인관계유능성의 정도는 다음과 같다. 의사소통 능력은 5점 만점에 3.79점(± 0.45)으로 나타났으며, 공감 능력은 5점 만점에 3.37점(± 0.41)으로 나타났다. 대인관계유능성은 5점 만점에 3.26점(± 0.37)으로 나타났으며, 하위 항목별로는 갈등관리가 3.50점(± 0.47), 타인에 대한 배려는 3.26점(± 0.31), 관계형성 및 개시는 3.20점(± 0.59), 권리나 불쾌함에 대한 주장은 3.16점(± 0.56), 적절한 자기개발은 3.09점(± 0.93) 순으로 나타났다 (Table 2).

Table 2. Level of communication skills, empathy and Interpersonal relationship

(N=129)

Characteristics	Categories	Mean ± SD	Actual range
Communication skills		3.79±0.45	2.80-4.73
Empathy		3.37±0.41	1.87-4.40
Interpersonal relationship		3.26±0.37	2.20-4.17
Relationship formation and initiation		3.20±0.59	
claims of rights or displeasure		3.16±0.56	
consideration for others		3.26±0.31	
Conflict management		3.50±0.47	
appropriate self-development		3.09±0.93	

3.3 대상자의 의사소통능력과 공감능력 및 대인관계유능성과의 관계

본 연구의 변수 간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의사소통 능력은 공감능력($r=.52, p<.001$)과 대인관계유능성($r=.67, p<.001$)에서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냈으며,

공감능력은 대인관계유능성($r=.49, p<.001$)과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냈다(Table 3).

Table 3. Correlations among communication skills, empathy and Interpersonal relationship

(N=129)

Variables	Communication skills	Empathy	Interpersonal relationship
	r (p)	r (p)	r (p)
Communication skills	1		
Empathy	.52 (.001)	1	
Interpersonal relationship	.67 (.001)	.49 (.001)	1

3.4 대상자의 의사소통능력과 대인관계유능성의 관계에서 공감능력의 매개효과

대상자의 의사소통능력과 대인관계유능성의 관계에서 공감능력의 매개효과에 대한 검증은 위해 Baron과 Kenny [20]의 매개효과분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Durbin-Watson 값을 구한 결과 2.051로 2에 가까워 잔차의 독립성이 확인되었으며, 오차 항들의 자기상관 또한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사소통능력과 공감능력의 공차한계는 0.86~0.88로 0.1보다 큰것으로 나타났으며, 분산팽창지수(Variance Inflation Factor, VIF)는 1.21로 10미만이므로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없음이 확인되었다. 본 연구에서 통제변수인 건강상태는 ‘좋음’은 0, ‘나쁨’은 1의 값으로 더미처리하였으며, 의사소통 교육은 ‘무’를 0으로, ‘유’를 1로, 공감 교육은 ‘무’를 0으로, ‘유’를 1로 더미처리하여 회귀식에 포함시켰다.

Baron과 Kenny [20]의 검증 1단계에서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중 공감능력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난 변수로 건강상태를 투입하였다. 그 결과, 건강상태를 통제 한 의사소통능력은 공감능력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beta=.51, p<.001$).

2단계에서는 일반적 특성에서 대인관계유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의사소통 교육, 공감 교육을 통제했을 때, 의사소통능력이 대인관계유능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beta=.65, p<.001$).

3단계에서는 일반적 특성에서 의사소통 교육, 공감 교육을 통제했을 때, 공감능력이 대인관계유능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beta=.20, p=.008$), 변수들의 설명력은 48.4%이었다. 3단계에서는 독립변수인 의사소통능력이 종속변수인 대인관계유능성에 대한 영향력이 2단계보다 감소하였고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beta=.55, p<.001$). 이와 같이 3단계에서 투입된 독립변수의 영향력이 2단계보다 유의하게 감소하면 부분매개효과(Partial mediation effect)가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 [20].

마지막으로 공감능력에 대한 부분매개효과의 통계적 유의성 검증을 위해 Sobel test를 실시하였으며, 의사소통 능력과 대인관계유능성의 관계에서 공감능력의 매개효과 ($z=2.39, p=.016$)는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Table 4).

4. 논의

본 연구는 MZ세대 간호대학생의 의사소통능력과 대인관계유능성의 관계에서 공감능력의 매개효과를 확인

Table 4. Mediating effect of empathy in the relationship between communication skills and interpersonal relationship

(N=129)

Step	Independent variables	Dependent variables	B	SE	β	t	p
1	Health status ¹⁾	Empathy	-0.37	0.20	-.14	-1.80	.074
	Communication skills		0.46	0.07	.51	6.72	<.001
Adj.R ² =.275, F=25.24, p<.001							
2	Communication education ²⁾	Interpersonal relationship	0.06	0.08	.07	0.78	.437
	Empathy education ³⁾		0.08	0.07	.10	1.10	.275
	Communication skills		0.54	0.05	.65	9.98	<.001
Adj.R ² =.459, F=37.13, p<.001							
3	Communication education ²⁾	Interpersonal relationship	0.09	0.08	.11	1.17	.245
	Empathy education ³⁾		0.05	0.07	.07	0.78	.436
	Communication skills		0.45	0.06	.55	7.32	<.001
	Empathy		0.18	0.07	.20	2.68	.008
Adj.R ² =.484, F=31.01, p=.008							

Adj.R²=adjusted R-squared; B=unstandardized b coefficient; SE=standard error

Reference group: 1) Health status*goodness 2) Communication education*none 3) Empathy education*none

하여 이들의 대인관계유능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실효성 있는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시도되었다.

MZ세대는 기성세대와는 다른 삶의 방식으로 인해 이들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관심이 증가[1]하고 있어, 앞으로의 간호에 주역이 될 MZ세대 간호대학생을 중심으로 연구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 MZ세대 간호대학생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공감능력과 대인관계유능성의 차이에 대해 살펴본 결과, 공감능력은 건강상태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이를 확인한 선행 연구가 없어 비교가 어려우나 공감능력은 타인의 건강에 대한 이해와 건강증진 및 긍정적인 치료적관계를 형성[21]하는 데 도움이 되는 능력으로 대상자를 돌볼 자신의 건강상태에 대한 긍정적 이해의 선행이 필요하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대인관계유능성은 의사소통 교육과 공감 교육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으나 전공만족도에서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대인관계유능성이 전공만족도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는 선행 연구들[3,13]과는 상반되는 결과이다. 이는 본 연구의 대상자는 교실에서 대면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수업에 참여했던 선행 연구 대상자와는 달리 유래없는 감염병 펜데믹을 경험하며 비대면 문화가 일상이 된 상황 속에서 학업을 유지하고 있는 학생들이면서 특히 다양한 디지털 기술의 발전과 함께 성장해온 MZ세대들로, 전공만족도가 대인관계를 맺고 유지하는데 차이를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유추해볼 수 있다.

MZ세대 간호대학생의 의사소통능력, 대인관계유능성 및 공감능력의 수준을 살펴본 결과, 의사소통능력은 5점 만점에 3.79점으로 나타나 황영희와 박선정(2020)의 연구[12]의 3.65점 보다는 다소 높은 수준이었으나, 이영미 연구[14]의 3.86점 보다는 다소 낮은 수준이었다.

공감능력은 3.37점으로 조은희의 연구[13]의 3.39점과 유사한 결과이나 황영희와 박선정(2020)의 연구[12]의 3.40점과 이영미[14]의 연구의 7점 만점에 5.98점 보다는 다소 낮은 결과를 보였다. 이러한 연구결과의 차이는 대상자의 학년이나 대상자의 다양한 경험에서 비롯된 결과로 보여지므로, 추후 반복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대인관계유능성은 3.26점으로 나타났으며, 각 하위 영역별로는 관계형성 및 개시가 3.20점, 권리나 불쾌함에 대한 주장이 3.16점, 타인에 대한 배려가 3.26점, 갈등관리 3.50점, 적절한 자기개발이 3.09점으로 나타났다. 이는 같은 도구로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

[3,13]의 결과 보다 낮은 결과이며 각 하위 영역별로도 전체적으로 낮은 결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차이는 본 연구 대상자의 경우 이미 비대면 문화가 일상화된 환경 속에서 생활하고 있으면서 자기애가 강한 MZ세대로[1] 다양한 비대면 공간에서 자신의 취미나 필요에 의해 자유롭게 일방향적 인관관계를 맺고 정리하는데 익숙한 특성이 반영된 결과로 사료된다.

각 변수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 의사소통능력은 공감능력($r=.52, p<.001$)과 대인관계유능성($r=.67, p<.001$)에서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내었으며, 공감능력은 대인관계유능성($r=.49, p<.001$)과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내어 선행연구[3,12-14] 결과와 일치한다. 의사소통능력이 우수한 학생은 임상현장에서 대인관계 유지에 유능할 수 있으며[22], 효율적인 의사소통을 위해서는 타인을 배려하고 타인에 대한 공감능력[23]이 필요하므로 의사소통능력과 공감능력, 대인관계유능성 서로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는 역량이라 볼 수 있다.

본 연구의 주요 목적인 의사소통능력과 대인관계유능성과의 관계에서 공감능력의 매개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Baron과 Kenny [20]의 매개효과 검증방법을 이용하였으며, 결과적으로 의사소통능력은 공감능력의 부분매개효과를 통해 대인관계유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의사소통능력은 대인관계유능성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지만 공감능력이 매개될 때 더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대상자의 의사소통능력에 대한 영향 요인으로 대인관계유능성이 예측변수로 나타났으며[3], 의사소통능력과 대인관계에서 공감이 부분매개효과를 보인 연구[13]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간호대학생은 미래의 간호사로서 간호현장에서 다양한 세대의 구성원과 협업을 해야하며 다양한 세대의 대상자를 대상으로 간호역량을 발휘해야 하는 준비과정에 놓인 집단이다. 그러나 타인에 대한 희생보다는 자신의 행복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개인적 성향이 강한 MZ세대[1] 간호대학생은 좀 더 특별한 준비가 필요할 것으로 여겨진다. 비대면 소통에 자유로운 MZ세대 간호대학생의 의사소통능력을 향상시키고, 공감능력이 노력과 연습을 통해 변화할 수 있는 특성을 지니는 점을 고려하였을 때[9] MZ세대 간호대학생의 공감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차별화된 교육 프로그램 마련이 필요하다. 이러한 역량 함양은 대인관계유능성을 견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나, MZ세대는 다양한 디지털 문화에 익숙하며 호기심을 자극하

고 재미 요소를 가미한 콘텐츠를 즐겨 찾는다[23]고 하였으므로, 이러한 특성이 반영된 디지털 콘텐츠를 활용함을 벗어나는 새로운 개념의 교육 프로그램 개발이 중요하다고 사료된다.

본 연구를 통해 MZ세대 간호대학생의 의사소통능력과 대인관계유능성의 관계에서 공감능력이 부분 매개효과가 있음이 확인되었으므로, 공감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에 근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MZ세대 간호대학생의 의사소통능력과 대인관계유능성의 관계에서 공감능력의 매개효과를 확인하고자 하였으며, 공감능력이 매개될 때 더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를 통해 미래의 간호를 담당하게 될 MZ세대의 특성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하였으며, 특히 비대면 문화에 익숙한 MZ세대 간호대학생의 대인관계유능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기존의 일방향적 주입식 교육이 아닌 디지털 콘텐츠 등을 활용한 다양한 형태의 교육 프로그램 개발 등 교육의 혁신이 필요함을 시사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연구 결과를 토대로 실효성 있는 공감능력 함양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후속 연구 진행의 필요성을 제언하고자 한다.

REFERENCES

- [1] S. H. Park. (2022). A study on the characteristics and language use of the MZ generation. *Korean Language Research Circle*, 63(18), 1-23. DOI : 10.16876/klrc.2022.63.18.1.
- [2] K. S. Choi, W. S. Lee, Y. S. Park, M. H. Jun, S. Y. Lee, Y. W. Park, & S. Y. Park. (2016). The relationship between cultural competency and the importance of nurses' qualities perceived by undergraduate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Community Health Nursing*, 27(2), 163-172. DOI : 10.12799/jkachn.2016.27.2.163.
- [3] M. Y. Woo, H. J. Bae, & S. J. Hong. (2020). The Convergence Effect of Emotional Intelligence and Interpersonal Relationship Competence on Communication Skill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 Korea Convergence Society*, 11(12), 401-408. DOI : 10.15 207/JKCS.2020.11.12.401.
- [4] D. Buhrmester., W. Furman., M. T. Wittenberg, & H. T. Reis. (1988). Five Domains of Interpersonal Competence in Peer Relationships. *J Pers Soc Psychol*, 55(6), 991-1008.
- [5] Y. H. Cho, E. M. Lee, & Y. J. Oh. (2023). Influence of Emotional Intelligence, Communication Competence, and Interpersonal Competence on Adaptation to College Life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Industrial Convergence*, 21(11), 117-124. DOI : 10.22678/JIC.2023.21.11.117.
- [6] K. J. Kyoung, N. E. Kim, & S. Y. Kwak. (2021). The Effects of Egoresilience and Interpersonal Competence on Clinical Competence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22(12), 218-227. DOI : 10.5762/KAIS.2021.22.12.218.
- [7] Van. Dijke., J. van. Nistelrooij. I. Bos. P, & J. uyndam. (2019). Towards a relational conceptualization of empathy. *Nursing philosophy: An international journal for healthcare professionals*, 21(3), e12297. DOI : 10.1111/nup.12297.
- [8] J. E. Lee, & S. L. Kim. (2005). Relationship among stress coping strategies, and self-esteem in nursing students taking clinical experience.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11(1), 98-106.
- [9] J. I. Kim. (2020). The Effects of Emotional Clarity and Empathy on Interpersonal Competence among Nursing College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21(6), 286-295. DOI : 10.5762/KAIS.2020.21.6.286.
- [10] B. Dewar, & M. Nolan. (2013). Caring about caring: developing a model to implement compassionate relationship centred care in an older people care setting. *International Journal of Nursing Studies*, 50(9), 1247-1258. DOI : 10.1016/j.ijnurstu.2013.01.008.
- [11] S. H. Hur, Y. J. Nam, & S. K. Nam. (2019).

-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Empathy Capability Scale. *Asia-pacific Journal of Multimedia Services Convergent with Art, Humanities, and Sociology*, 9(2), 109-116.
- [12] Y. H. Hwang, & S. J. Park. (2020). The effects of empathy and self concept on problem solving: Focusing on the mediating effect of communication of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26(4), 348-356.
DOI : 10.5977/jkasne.2020.26.4.348.
- [13] E. H. Jo, H. S. Kim, & S. J. Hwang. (2020). Mediating effect of communication ability in the relation between empathy and interpersonal relation in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26(3), 290-298.
DOI : 10.5977/jkasne.2020.26.3.290.
- [14] Y. M. Lee, & E. S. Lee. (2022). Effects of Interpersonal Competence, Empathy, and Communication Ability of Nursing Students on Ageism. *The Korean Society for Multicultural Health*, 12(2), 59-69,
DOI : 10.33502/JKSMH.12.2.059.
- [15] R. B. Rubin. (1990). Communication competence. *Speech communication: Essays to commemorate the 75th anniversary of the Speech Communication Association*, 94-129.
- [16] G. H. Hur. (2003). Construction and Validation of a Global Interpersonal Communication Competence Scale. *Korean Journal of Journalism & Communication Studies*, 47(6), 380-408.
- [17] N. R. Han, & D. G. Lee. (2010). Validation of the Korean Version of the Interpersonal Competence Questionnaire in Korean College Students. *The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22(1), 137-156.
- [18] M. H. Davis. (1983). Measuring individual differences in empathy: Evidence for a multi-dimensional approach.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4(1), 113.
DOI : 10.1037/0022-3514.44.1.113.
- [19] B. S. Jeon. (2003). The relationship between empathy and altruistic behavior. master's thesis.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Daejeon.
- [20] R. M. Baron, & D. A. Kenny. (1986). The moderator-mediator variable distinction in social psychological research: Conceptual, strategic, and statistical consideratio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1(6), 1173-1182.
- [21] J. H. Park, & S. K. Chung. (2015). The relationship among self-esteem, empathy, communication skill and clinical competency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16(11), 7698-7707.
DOI : 10.5762/KAIS.2015.16.11.7698.
- [22] G. J. Na, & E. H. Na. (2019). The Effect of communication competence and competence and interpersonal relationship abilities on the degree of campus life satisfaction: Major selection in department nursing and health science collage students.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19(9), 205-221. DOI : 10.21742/AJMAHS.2019.02.11.
- [23] H. K. Shin. (2020). A case study on value creation of fashion brands using content collaboration targeting MZ generation. *The Research Journal of the CostumeCulture*, 28(6), 830-844. DOI : 10.29049/rjcc.2020.28.6.830.

김 양 신(Yangsin Kim)

[정회원]



- 2012년 2월 : 건양대학교 간호학과 (간호학석사)
- 2016년 2월 : 공주대학교 간호학과 (간호학박사)
- 2016년 9월~현재 : 대전과학기술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 관심분야 : 노인간호, 만성질환
- E-Mail : lemon72@dst.ac.kr

이 재 숙(Jeasook Lee)

[정회원]



- 2014년 8월 : 단국대학교 보건학과 (보건학 박사)
- 2022년 9월~현재 : 문경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 관심분야 : 지역사회 간호, 노인, 장기요양
- E-Mail : hmoymo@mkc.ac.kr